



한국남동발전(주) 허엽 사장

[학력]

1976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1983 동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주요경력]

1978 한국전력공사 입사
2008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장
2009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본부장
2010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장
2012 한국전력공사 개발사업본부 본부장
現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Power Interview

지난해 9월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에너지기업’ 한국남동발전(주)의 다섯 번째 수장으로 취임한 허엽 사장, ‘혁신’과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력회사를 꿈꾸는 한국남동발전과 허엽 사장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들어 보았다.

한국남동발전(주)의 새로운 수장이 된 허엽 사장은 취임 소감으로 “남동발전이 전력그룹사를 넘어 한국의 윤리경영을 대표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성과뿐만 아니라 윤리경영으로 대내·외 이해 관계자에게 존경받는 회사가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경영 방침으로는 회사 본연의 임무인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가치의 창조’ 지속적인 가치 제공 및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혁신과 성장’ 대내·외에서 신뢰받는 건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과 신뢰’ 등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더불어 향후 역점 추진분야에 대해서는 “최적의 전원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여 노후발전소에 대한 적극적인 리파워링과 연료의 경제적·안정적 조달을 통한 주력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무건전성 유지를 전제한 신사업 추진과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창조경영 추구하고 기업경쟁력 우위를 확보함은 물론 ‘겸허한 자기관리’, ‘책임있는 업무자세’, ‘공정한 업무처리’의 윤리적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남동 고유의 CSR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부직원의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해 열린 대화, 벽 허물기 등 소통 프로그램, GWP 활동, Fun 경영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동발전의 올해 최우선 과제 및 해결방안으로는 ‘영흥 7,8호기 연료협약’과 ‘RPS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꼽았다. 먼저 영흥 7,8호기 석탄 연료 사용협약에 대해서는 “기존에 허용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부지 내 발전소를 증설할 경우 석탄사용이 가능한 '대기환경보전법'을 환경부와 함께 검토 중이다"고 말하며, "영흥 7,8호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발전소로 건설할 예정이며, 특히 수도권 대기배출총량 제도 준수를 통해 수도권 대기 질 개선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PS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으로 "현재 남동발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현황은 총 386MW 규모이며, 별도의 의무량이 할당된 태양광은 그동안 개발한 124MW 사업을 통해 목표달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비태양광 분야도 풍력, 연료전지, 소수력, 바이오 등 다양한 에너지를 통해 의무량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태양광 분야의 주요 성과로는 "2011년 7월에 준공된 영흥풍력 1단지(22MW)와 지난해 영흥풍력 2단지(24MW), 영암풍력단지(40MW)의 준공으로 총 86MW의 국내 최대 국산풍력단지를 운영하게 되었고, 후속사업인 거제풍력(36MW)도 올해 말에 준공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료전지는 분당연료전지 2단계 3MW를 지난해 4월에 준공하였고, 추가로 가스공사 안산사업소 부지 내에 3MW급 연료전지를 올해 5월에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우드펠릿 혼소설비를 삼천포, 영흥, 영동, 여수에 구축하여 RPS 의무목표 달성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발전은 발전사업 3건과 광산지분 투자 2건 등 총 5건의 해외사업을 진행하며 글로벌 발전사 도약이란 목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허 사장은 "인도 마하라슈트라 석탄화력(600MW)은 작년 6월부터 건설공정에 맞춰 출자금을 납입하고 있고 올해 1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준비 중이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및 운전기술을 기반으로 전력수요 증가율이 높은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 표적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wer Interview

남동발전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사명으로 삼고, 발전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023년까지 설비용량 3만MW, 매출 13조 원, 신뢰지수 95점 달성을 목표로 담은 ‘비전 2023’을 선포하였다. 허 사장은 “2014년 남동발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며, 발전설비의 지속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 운영발전소의 증장기 설비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취약설비를 적기보강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설비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합 재난리스크 매지니먼트 시스템인 ‘KOSEP 재난관리 3.0’을 구축하여 선진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부응하고 미래 사업동력과 경영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내외 신사업의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허 사장은 “출자사업 지분매각 및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 확보와 사업별 재무진단 실시를 통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사업을 내실화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비용 및 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시행함으로써, 재무건전성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역량을 높이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다 하기 위해 “제품 판로 개척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역량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기업의 특성을 살린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고유의 CSR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계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남동발전의 대응방안으로는 ▲합리적 설비정비체계의 개선 ▲노후설비에 대한 과감한 설비투자 ▲설비기술력 업그레이드 등의 세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허 사장은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에 대해 점검주기 단축 및 정비기간 연장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으며, 중요 고장 예상지점에 대한 주말 등 경부하기간을 활용한 중간점검 및 정비를 활성화하여 고장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분당복합 설비의 친환경 고효율화 설비개선을 위하여 2018년까지 1조 원의 설비투자를 추진 중이며, 영동화력 친환경 설비개선을 위해 2,400억 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올 연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설비점검 및 고장분석 분야에 산업계 및 학계 등의 외부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설비점검 및 고장분석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 하고, 10대 중점기술 그룹 등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설비관리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동발전은 올해 3월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사옥건설은 건물 내부 마감공사, 조경, 포장, 설비 마감공사 중이며 사업 종합공정률은 97.5%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회사 중에서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 남동발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한전 분사 이후 발전회사 중 가장 많은 신규발전설비를 건설하였고 현재도 영흥 5~8호기, 여수 1호기의 발전소 건설, 신재생 및 신사업 등의 투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채규모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2017년 기준 이자보상 배율 4배, 당기순이익이 4,000억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하며, “예정 사업의 사전 경제성평가 강화와 VE 등신공법 개발을 통한 투자비 절감, 혁신활동을 통한 비용절감, 영흥 5,6호기 준공에 따른 수익 증대 등을 통해, 부채비율 축소는 물론 튼튼한 재무구조를 유지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허 사장은 “전력사업을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책임감을 깊이 느꼈으며 일부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경영 등 사회적 비난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경영방침 제정과 경영의 2가지 KEY-WORD로 ‘혁신’과 ‘윤리경영’을 선정하여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전개는 물론 발전회사로서 기본에 충실할 것을 거듭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심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윤리경영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하며 다시 한 번 윤리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